나라사랑 | 뉴스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월간) 제908호 11

## '마스크 보훈외교' 공공외교 베스트협업상 수상

## 한국PR협회 해외 부문 최우수상 이은 쾌거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교'가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사례 베스트 협업상을 수상했다.

지난달 21일 외교부 공공외교위원 회가 전체 중앙행정기관의 공공외교 사례를 대상으로 엄정한 심사를 거

쳐 선정한 '2020년도 공공외교 우수 사례'에서 국가보훈처의 마스크 보 훈외교가 농림축산식품부의 '비대면 농식품 및 한식홍보 사업'과 함께 베 스트협업상에 선정됐다.

공공외교위원회는 마스크 보훈외 교의 선정 이유와 관련해 "국가보훈 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범정부 적인 협업을 통해 22개국 유엔군 참 전용사에게 마스크 100만장을 전달 하고, 이러한 사례가 국내와 해외 현 지 언론에 다수 보도되는 등 의미 있 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의 우호관계를 강 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코로나19 팬데 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유엔참 전국 참전용사에게 범정부적 협업을 통해 마스크 100만장을 지원했다.

보훈처의 이 같은 노력에 벨기에 국왕, 미 국무·보훈장관, 캐나다 보 훈부 장관 등 참전국 주요 인사들이 감사메시지로 답했고, 다수의 유엔 참전용사와 가족의 인터뷰와 감사편 지 등이 국내와 해외 현지 언론에 다 수 보도되어 뜨거운 화제가 됐다.

한편, 유엔참전용사 마스크 보훈외 교는 이에 앞서 한국PR협회가 선정 한 2020년 한국PR대상 해외PR부문 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원주보훈요양원 12월 16일 개원

고령 보훈가족을 위한 강원권 요양시설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 이 지난달 16일 강원도 원주 혁신 도시에서 열렸다.

이번에 문을 연 보훈요양원은 강원도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 는 보훈가족의 편안한 노후를 위 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에서 7번 째로 개원하는 보훈요양원이다.

이날 개원식은 양봉민 한국보 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만 참석한 가운데 무관중으 로 개최됐다.

이번에 문을 연 원주보훈요양 원은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 9,785m² 규모로, 넓고 쾌적한 시설 을 갖췄다.

원주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에

200명, 주간보호센터에 25명이 입 소가능하며, 1인실과 2인실을 설치 해 선택의 폭을 넓혔고, 4인실도 폭 넓은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 감염병 위험에 대비했다.

보훈처는 그동안 전국 6개 보훈 요양원을 통해 보훈가족의 고령 화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 려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안 락한 노후 지원과 전문 요양서비 스를 제공해 왔다.



지난달 16일 원주보훈요양원 개원식에서 참석자들이 개관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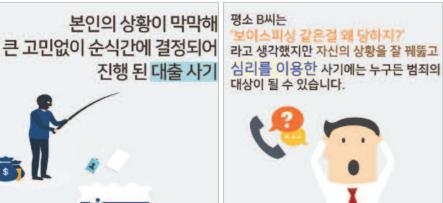
## 참전용사 후손·교사 회의 제1회 월드콩그레스 온라인 개최

지난달 22개국 참전용사 후손과 후손 교사 들이 주축으로 하는 학술회의인 제1회 월드 콩그레스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한국 시간으로 12일 오후 11시부터 13일 오전 4시)까지 이어졌다.

월드콩그레스는 참전용사 후손과 후손 교 사들이 참여해 전 세계적으로 참전의 의미를 고찰하고, 참전국 미래세대를 위한 6.25전쟁 역사 교육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 크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22개 참전국 사회역사교사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6·25전쟁 70주년 의 세계사적인 의의와 교육기반 구축방안'이 라는 주제로 존스홉킨스대학 캐서린 웨더스 비 교수의 '한국전쟁, 발발 70년 후' 주제 강 의와 6·25전쟁에 대한 22개국 교육현황 발표 와 토의가 이어졌다.





• • • •







을 갚아야





B씨는 00은행직원으로 사칭한 사람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 0억을 입금했지만 사기범은 연락두절되며 잠적한다.

